오늘의 날씨와 생활

11월 26일 목요일 음 10월 12일 (4물)

기상정보

대체로 흐림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흐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9~11℃, 낮 최고기온은 14~16℃로 전망된다. 한라산 정상부근의 기온이 떨어져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으니 등반객들은 등반길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오 전	강 수 확 률	오 후
30%	제 주	20%
30%	성 산	20%
30%	고 산	30%
30%	서귀포	20%

	해뜸 07:16 / 해짐 17:27	달뜸 15:22 / 달짐 03:12
물때	만조 08:43 / 20:34	간조 02:31 / 14:51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흐림	11/13℃
모레	구름 많음	7/10℃

생활·안전 기상정보

식중독지수	감기가능지수
관심	보통

월드뉴스

미 사막에 의문의 금속기둥 등장… 관심 집중

"다른 세계 물질 아니다"

유타주 사막에서 발견된 금속기둥. 연합뉴스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서부 유타주 사막에서 헬리콥터를 타고 환경조사를 하던 주 당국자들은 뜻밖의 물체가 황야 한복판에서 번쩍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근처에 착륙해 살펴보니 이 물체는 무려 3.6m 높이의 삼각기둥으로, 매끈한 금속 재질이었다.

지금까지도 이 기둥이 무엇인지, 누가 기둥을 여기까지 가져다 둔 것인지 밝혀지지 않자 소셜미디어에서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고 AFP, AP 통신 등이 24일 보도했다.

당국자들이 근처에 착륙했을 당시 이 기둥은 바닥에 고정돼 있었다. 그러나 주변에는 발자국이나 자동차 바퀴 자국이 남아있지 않아 누가, 어떻게 이를 설치했는지 알 수 없었다고 한다.

기둥의 정체를 두고 소셜미디어에서는 각종 추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 기둥은 미 영화감독 스탠리 큐브릭의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 나오는 외계 조형물과 흡사하다는 점에서 영화 팬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 당국자는 "이 기둥이 다른 세계에서 온 물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로서는 예술 조형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당국의 추측이다.

하지만 당국은 이 기둥이 발견된 정확한 위치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사람들이 기둥을 보려고 사막으로 찾아왔다가 길을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제주의대표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이 용 곤 편집국장 조 상 윤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 : hl@ihalla.com
광고접수 본 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기사제보 750-2214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30
구 독 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목요담론

매처럼 매섭게 세상을 누비기 위해선

김 완 병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학예연구사

요즘 웬만한 경승지는 인산인해이다. 몸살 날 지경이다. 오죽하면 한라산 등산을 예약 탐방제로 재가동할까. 해안 절벽이 위치한 곳도 그렇다. 사실 해안 절벽은 제주의 텃새인 매의 번식지이다. 매들이 떠날까 봐 걱정이지만 매는 늘 단단하게 마음을 다지고 있다.

시기적으로 겨울 철새들이 방문할 때다. 반면 매는 긴장할 때이다. 올여름, 번식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매들은 이번 겨울을 잘 버텨내야 한다. 겨울 철새들이나 사람들만큼이나 서로의 애증 관계를 잘 관리해야 한다.

올봄과 여름에 섭지코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보통 매는 깃털 색이나 몸매를 보고 성숙도를 판별할 수 있다. 3월 매 한 쌍이 짝을 맺었는데, 암컷이 수컷보다 성숙한 개체였다. 알을 품기 시작하더니, 거의 일방적으로 암컷이 품고 수컷은 게을리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아닌 게 아니라 큰일이 터졌다. 알을 품은 지 20여 일 전후로 암컷이 둥지로 돌아와 알 옆에 앉아 엎드렸는데, 이후 깨어나지 않았다. 수일을 기다려도 결국 일어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생을 마감했다. 이후 수컷이 알을 품는 가 싶더니, 혼자 감당하기 힘들었는지 알을 깨버리고, 둥지를 떠나버렸다. 이윽고 수컷은 둥지 주변에서 기회를 노리던 다른 암컷과 짝을 짓고는 다른 위치에서 알을 품기 시작했다. 불행하게도 이번에도 번식에 실패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몇 번을 방문했지만, 7~9월에 매들이 섭지코지 주변에서 보이지 않았다. 안타까웠다.

그러다 이달 초에 섭지코지를 둘러봤다. 순간 '케, 케, 케'하는 소리가 들렸다. 매가 경계하는 소리였다. 선돌 바위에 매 두 마리가 나타났다. 육안으로 봐도 성숙한 한 쌍의 매였다. 번식 실패를 겪은 부부인지 다른 곳에서 이곳으로 이동해 온 쌍인지는 확실치 않다. 분명한 것은 매 부부가 내년 번식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암수가 한 지역에서 겨울을 지내는 것은 세력권을 형성하여 지키는 것이다.

제주 동쪽의 섭지코지, 성산 일출봉, 두산봉, 우도봉 등 4곳이 매에게는 핵심적인 번식 세력권이다. 새끼를 키워낸 어미와 태어난 새끼들 간에 경쟁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매 부부는 겨울 내내 영역으로 들어오는 경쟁자를 물리쳐야 하며, 사람의 접근에도 반응을 보인다. 이때부터 매는 서로의 부지런함과 용감성을 눈여겨보면서, 부부로서의 신의를 시험하는 것이다.

꽤 오랫동안 매 부부를 지켜보니, 이번에는 무사히 새끼들을 키워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장담하지 못한다. 아직은 따뜻하지만, 앞으로 닥칠 매서운 악천후, 경쟁자들과의 영역 싸움, 서로에 대한 배려와 배신 등 극복해야 것이 한둘이 아니다.

세계인의 관심 속에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코로나19 사태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두 후보 간의 싸움은 맹렬했고 매몰찼다. 더 좋은 곳을 차지하기 위한 공정한 다툼은 야생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상식이어야 한다. 경쟁은 가장 아름다운 민주주의 가치이며, 승복은 더 멋진 행복이다. 제주의 매는 텃새이지만 텃세를 부리는 데 익숙하지 않고 불복하지 않는다. 누구든 언제든 쟁쟁 상대이기에 늘 준비된 자세로 세상을 맞이한다.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자신에게 닥칠 난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줄 알아야 번식 성공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더 멀리 여행 가고 싶겠지만, 준비된 자만이 매처럼 매섭게 세상을 누빌 수 있는 것이다.

열린마당

청렴한 자세로 준비하는 외국어 교육

고 경 희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언어를 통한 교감과 교류는 전 세계 사람들 간의 접촉으로 무한히 확대돼 왔지만, 코로나19로 더 이상 기존의 방식으로는 교류가 불가능해 보이는 언택트 시대가 도래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 인재개발원에서는 중단됐던 외국어교육 재개를 위해 온라인 화상 강의 시스템을 도입했고 온라인 화상 강의가 가능한 플랫폼은 물론 화상교육에 필요한 웹캠 등의 장비 등을 갖추고 중단없는 외국어 교육 실시를 위한 노력을 해왔다.

온라인 화상 강의를 추진하면서 일방적인 수업 진행이 아닌 교육생 및 강사들 간의 실질적인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고자 했으며 서로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는 진행 방식이야말로 청렴한 실무자의 자세라고 생각했다.

부득이하게 시작한 온라인 수업이었으나 장점들을 발견하게 됐고 온라인 수업이 대면 수업 일부 대체 가능성을 확인하기도 했다.

우선, 마이크 오프 기능을 활용해 교육생이 큰소리로 수업내용에 대한 개인적 반복이 가능하다는 점, 모든 교육생의 얼굴이 화면에 보여 수업 집중도가 높다는 점, 무작위로 정하는 다양한 파트너와의 회화 매칭은 물론 강사의 개입이 가능해 세심한 개별적 피드백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다.

아울러 거리적 문제가 해결된다는 장점도 있다. 특히, 인재개발원이 제주시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서귀포 지역 등 원거리에 거주하는 교육생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다.

이제는 외국어 수업들이 집합 교육으로 일부분 운영되고 있기도 하지만,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온라인 화상 수업을 활용한 교육 방식이 다양하게 응용될 것이라 생각한다.

외국어 교육을 책임지는 공직자로서 서로의 의견을 듣고 존중하며 수렴하는 청렴의 자세로 외국어 교육의 새로운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하고자 한다.

소방차 출동로는 안전 확보의 동맥

이 재 호
제주소방서 아라119센터

안전 취약 시기 속 화재 및 안전사고 등의 긴박한 상황에서 신속한 현장 도착 및 초동대처가 생명과 재산 보호에 직결되기에 소방차 출동로 확보는 다른 어떤 사항보다 중요하다.

여러분은 골든타임이 어느 정도의 시간을 말하는 것인지 아시나요?

화재 및 구조, 구급활동을 위한 골든타임은 우리가 예상하는 시간보다 더욱 더 짧다. 현장 도착 4분이라는 극히 짧은 시간 내,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좌지우지된다. 하지만 도로변 주·정차 문제 등으로 인해 현장 도착 시간이 지체돼 대형 화재 및 인명피해 등으로 확대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를 들 수 있으며, 도로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차 현장 진입 시간 지연이 대형 인명피해로 확산하게 된 큰 요인이었다.

최근에는 소방차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끼어들기, 가로막는 행위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외에도 스마트폰 어플 '안전신문고'를 통한 소화전 등 소방시설 설치 지역 5m 이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전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위반한 차량의 경우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렇듯 안전에 대한 참여 기회는 늘어나고 소방 관련 법률도 보완돼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내외적으로 한 걸음씩 나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회적 인식 개선과 안전 문화 정착이다.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관심이 나 자신과 소중한 가족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한 걸음씩 실천해 나가는 연말이 되면 좋겠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